

2020년 6월 24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간척지농업과 과 장 김춘기(044-201-1871), 시설서기관 이형주(1874)/ 제공일: 6월 24일(총 2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사업은 적법하게 이행 [경향신문, 한겨레, 한국일보 등 6.23~24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]

-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사업은 관계기관 협의 및 관련법에 따른 절차 등을 적법하게 이행한 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.
- 6월23일 경향신문 온라인<불법적이며 잼버리정신에 위배되는 해창 갯벌 매립 '생태계 파괴'>, 한겨레 온라인<새만금 잼버리터 매립공사 중단... 해창 갯벌 보전해야>, 6월24일 한국일보 W14면<환경단체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 중단 촉구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 드립니다.

언론 보도내용

- 새만금 잼버리부지 관련 종교·시민사회·환경단체들이 언급한 내용을 인용하여 아래와 같이 보도함
- (경향신문) 전국의 종교·시민사회단체는 “정부가 지난 2017년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사업 확정하면서 예산을 농지관리기금에서 조달토록 결정한 것은 기금사용목적에 위배되는 편법적인 사업 결정이었다”고 밝혔다.
- 농어촌공사와 정부가 농지관리기금법을 어기고 관광·레저용지의 매립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어서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법을 어기는 불법적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.

- (한겨레) 전국의 종교·시민사회단체는 “애초부터 잼버리조성사업이 편법적인 사업 결정이었던 것으로 기금을 불법 전용한 관광·레저용지 조성사업”이라고 지적
- (한국일보) 전북 환경단체들은 “매립공사 중인 잼버리대회부지는 관광·레저용지 조성을 위한 공사인데도 농지관리기금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”고 지적

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

- 잼버리부지 매립사업에 농지관리기금이 불법·편법적으로 사용되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.
- 2017년 8월 여성가족부 및 전라북도 등이 「2023년 세계잼버리대회」를 새만금 지역에 유치하였으며,
 - 공유수면인 새만금지역(관광·레저용지)에서 세계 잼버리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매립 및 기반시설 설치 등이 필요하여
 - 2017.12.6. 새만금위원회(위원장 국무총리)를 통해 새만금 기본계획을 변경(관광·레저용지 → 농업용지)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(19.7월) 등을 거친 후 사업을 착수(19.12월)한 바 있습니다.
- 따라서 잼버리부지 매립사업은 관계기관 협의 및 관련법에 따른 절차 등을 적법하게 이행한 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을 밝힙니다.